
고등과학원을 떠나며

○ 글_석진명·경기대학교 수학과 교수



고등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오며 편지를 받았던 것은 2013년 2월 겨울이었다. 그 당시 나는 JSPS 펠로우십에 지원했던 것이 불합격되었다는 통지를 먼저 받고 공황상태에 빠져있던 상태였다. 사실 고등과학원은 내 전공분야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박사후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었고 나 또한 못 먹는 감 짚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지원해 놓고 거의 반쯤 잊고 있었던 터라 JSPS 불합격은 거의 실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대학교 PARC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이기암 교수님과 변순식 교수님께 연구원 계약을 6개월 연장해 주십사 사정하였고 뒤늦은 계약연장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폐를 끼치게 될 상황이었다. 더구나 행정직원 선생님께서 절차가 너무 늦어 계약연장이 가능할지 어떨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하셨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던 차였으니 한국 최고의 박사후연구원 자리라는 고등과학원의 오며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두 눈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인사담당 선생님의 무심한 듯 시크한 한 줄의 합격 통지 메일이 나에게서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에게 내미는 구원의 손길로 여겨졌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연구원으로 합류하게 된 고등과학원은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등과학원에서 받았던 충분한 금전적 지원 덕분에 참가하고 싶었던 해외 학회도 마음껏 다녀올 수 있었다. 직원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내가 머쓱해질 정도였다. 졸업한 지 1여 년이 지났어도 직원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박사님’이란 호칭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멧쩍게 느껴졌었다.

그리고 1여 년 후 이제는 ‘박사’라는 호칭에 큰 거부감이 없어지게 됐을 때 고등과학원을 떠나 경기대학교에 새로운 등지를 틀게 되었다. 경기대학교는 아담하고 한적하여 고등과학원과 무척 비슷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생각해보면 임용시장에서 연거푸 쓴 잔을 들이키고 실의에 빠져있던 2014년 2월에 마지막으로 내게 손을 내밀어 준 이곳은 여러모로 고등과학원과 닮았다. 학생들이 나를 부를 때 쓰는 ‘교수님’이란 호칭에 혼자 당황하는 것도 마치 고등과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박사님’ 호칭을 듣

고 멧쩍어 했던 1년 전의 나를 떠올리게 해 재미있다.

문득 경기대학교의 선배 교수님께서 술자리에서 불쑥 꺼내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혹시 이후에 경기대학교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맺었던 인연을 잊지 말아줬으면 하신다고. 이제 막 부임한 햇병아리 신입교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그때는 머리를 긁적이며 멧쩍은 웃음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나는 그때 왜인지 모르게 고등과학원이 생각났다. 비록 1여 년 동안 맺은 짧은 인연이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준 고등과학원과 그곳에서 지냈던 소소한 기억들, 매일 오후 열리는 티타임의 여유로움을 아마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